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08

0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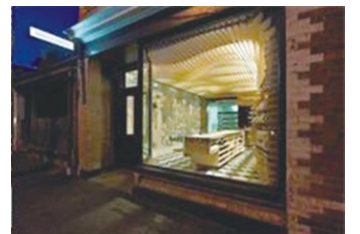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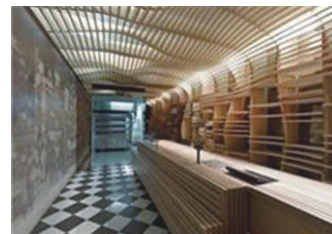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12면 발행

‘숨 쉬는’ 환경미술을 꿈꾸며... 우제길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9일간의 축제 시작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내 일원



시론 02

‘숨 쉬는’ 환경미술을 꿈꾸며_우제길

설계경기 03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특별기획 04-05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산업화로 21세기 부가가치 창출한다.

新건축 06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2부_문창호

특별기고 07

건축의 미래 1부 /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말 속의 건축현실_김광현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사업건축설계공모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 류연창 / 김갑동 / 박상구 건축사



광주 건축사 회원들의 무더위 극복 방법 / 이웃들과 함께 한 사랑의 배식봉사

‘숨 쉬는’ 환경미술을 꿈꾸며



우제길 禹濟吉 화가

1995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 인기작가상
2008 「한국추상회화: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2009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선정
2013 한가람 미술관 기획 76회 개인전
「빛으로 그려온 예도」展, 예술의 전당

젊은 시절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를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에 접한 도시와 마을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기억 한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다. 강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내려앉은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자연을 닮은 황토색의 집들이 주변의 산야와 동색을 이루면서 태양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절경이었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흔히 접해 온 환경미술도 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미술은 미술가의 관심 범위를 의미 그대로 미술 영역 그 이상의 범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동안 미술을 매개로 주변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있었다.

자연적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때, 자연 속에 건축물 내지는 구조물이 세워졌다면 그 장소의 분위기에 얼마나 부합하게 설치되었느냐의 문제, 그리고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감흥을 던져주느냐의 문제는 환경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주변 환경과 도시의 색은 그것이 단순히 건축 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도 희망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현재적 관점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 조성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랑할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사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갖은 힘을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한 채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도로, 혹은 교량들이 오히려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은 내세울 만한 구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

드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그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선(線)과 색채, 그리고 여유로운 여백의 문제에 있다. 이상의 요소들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우후죽순의 형세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통 한국화에서 바라보는 미적 기본은 여백에 있다. 그것이 바로 여유이며 공간의 아름다움이다. 여백을 충분히 살려서 공간을 구성하였을 때 멋과 아름다움은 나머지 공간, 즉 여백의 여유로움 속에서 더욱 배가 된다. 구조물을 에워싸는 공간을 단순히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한 채, 형상만 쫓아가는 형국이다 보니 도시 환경은 점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다. 환경 안에서 온전히 숨 쉬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전에 현대사회의 결과 중심의 세태에 익숙해져버리고, 이유 모를 무력감에 빠진다. 이 또한 도시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연에 대한 보답은 개발이나 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아끼며 놓아두는 것에 있다. 자연, 그리고 환경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미술 전람회나 환경미술 프로젝트가 종종 추진되어 왔다. 이는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램이자 실천을 위한 행동일 것이다. 자연 훼손에 대한 우리의 미안함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소중한 지구, 지켜줘야 할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명의 이기심, 혹은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요즘 이러한 전시를 통해 자연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여백 없는 답답한 도시에서 숨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찾을 수 있는 ‘공원도시’를 꿈꾼다. 도시를 위한 도시가 아닌 사람과 환경이 한데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도시 환경, 우리가 꿈꾸는 현재이자 미래일 것이다. ☞

wjgart@hanmail.net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대비반

*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5개도시 연계수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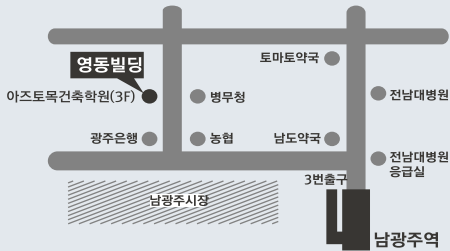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평가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종류 : 민간자격)

[원서접수 - 에너지관리공단]

- 1차 필기 : 2013.08.05 ~ 2013.08.16

8월 17일 (토) 1시 주말반 개강



버스노선
9 12 37 45 49 51 52 54 95 150 151 152 159
지하철 노선
남광주역 3번출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7 영동빌딩 3층
www.azacademy.co.kr



AZ아즈토목건축학원

062)352-0063

본 설계공모의 목적은 5.18 민족민주열사를 추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창성, 창의성,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있다. 예산 : 1,550백만원

발 주 처 : 광주광역시
설계공모방식 : 제한 공개공모

심사위원 : 박익수 교수(호남대학교), 엽대봉 교수(조선대학교), 고성석 교수(전남대학교), 박동준(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최형범(제일구조이엔씨), 김정환(파우조형환경연구소),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45번지(망월묘지 3묘원 내)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묘지공원,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대지면적 : 605,000m²
건축면적 : 535.67m²
연 면 적 : 318.88m²
건 폐 율 : 0.09%

용 적 륜 : 0.05%
규 모 : 철근콘크리트
층 수 : 1층
최고높이 : 9m
마 감 : 적벽돌 치장쌓기, 노출콘크리트, 징크판넬
주차대수 : 3대(공원 내 기존 주차장 사용)

당선작

류연창 / 김갑동 / 박상구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45번지(망월묘지 3묘원 내)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묘지공원,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대지면적 : 605,000m²
건축면적 : 352.82m²
연 면 적 : 322.30m²
건 폐 율 : 0.058%

용 적 륜 : 0.053%
규 모 : 철근콘크리트
층 수 : 1층
최고높이 : 7m
마 감 : 노출콘크리트, 징크판넬, THK24 투명로이복층유리
설비개요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입선작

조성호 건축사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산업화로 21세기 부가가치 창출한다.

- ‘거시기, 머시기’ 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59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내 일원에서 열려...
- 20개국 358여 디자이너·기업 참여 600여 작품 선배, 동시대 디자인 거장·신진 한자리에... 기획·생산·유통·수익으로 연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배경과 기본방향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1세기 디자인 시대를 맞아 광주의 디자인 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 문화도시 광주광역시 2005년 창설했다. 특히 그 동안 높은 국제적 인지도와 긍정적 평가를 다져 온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10주년이 되는 2005년도에 국제디자인전시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명실 공히 예술에 기반을 둔 국제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4년 프레 디자인비엔날레(6.18~27)를 개최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공식 출범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일반 디자인전시회나 디자인페어들과 달리 디자인 본연의 미적·실용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관계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과 전시구성으로 최근 국내외 주요 문화현상과 디자인의 흐름을 읽어내고 공공성을 확장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장르의 구분보다는 디자인 전 분야를 융합과 통섭으로 아우르면서 차별화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행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가 주관을 맡아 격년제로 홀수년도 9~10월에 열린다. 제1~2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제3회부터는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전시관을 주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의 공공장소 또는 시민들의 삶의 공간 속 별도의 사이트를 전시공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총괄 기획자인 디자인총감독이 설정한 주제와 기획의도에 따라 국내외 디자이너 및 작가를 선정 초대해 시각문화의 장인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문화의 생산적 가치와 창의성을 심화확장하는 국제학술회의, 관람객들의 관심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거시기, 머시기’ 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59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는 일면 모호한 말을 던진 듯하나 오히려 ‘서로 통한다’는 공감정서를 자극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대를 내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오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시기, 머시기’는 ‘것이기, 멋이기’로 읽힐 수 있다. 일상적이나 보편적인 ‘것’(Anything)도 디자이너의 몫이지만,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을 감안해 창의적인 ‘멋’(Something)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디자이너의 역할과 힘이며, 시대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미학적 개념보다는 디자인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유통 가능한 제품 개발이 대거 진행된다. 이러한 전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 참여 디자이너들은 동시대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로 총망라됐다. 20개국의 358명(디자이너 339명, 기업 19개)이 선정됐으며 국내외를 대표하는 디자인 거장과 신진 디자이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영 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3년 현재 (주)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9개 월간매체 발행인, 단행본 출판 발행인
2008년 4월 이태리 정부 최고 문화훈장 수상
1980년 4월 월간 <디자인> 인수, 발행인
1977년 6월 월간 <디자인> 편집부 기자
197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5개 섹션에 358명 참여... 동시대 디자인 거장·신진 한자리

올해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주제전을 비롯하여 본전시(디자인정체성), 특별전 1(디자인산업화), 특별전 2(지역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건축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등 총 20개국의 358명(국내 260명, 국외 98명)이 참여해 60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산업화에 주안점을 둔 전시답게 동시대 디자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이 총망라됐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세계적 건축 거장 구마 겐코, 저명한 건축 비평가이자 런던 디자인 미술관 관장인 데얀 수딕, 브랜든 기언 호주 국제디자인어워드 대표, 디자인과 파인아트 영역을 넘나드는 영국의 신진 디자이너인 톰 프라이스, 벨기에 대표 디자이너 마틴 드 시유리아, 비비안 웨스트 우드, 폴 스미스 등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은병수(비움 대표), 김백선(백선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패션 디자이너 장광호(카루소 대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구의 예술화를 시도한 최병훈 등 디자인계의 중견들을 만날 수 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큐레이터인 로이드 최, 2012~2013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디자인을 총괄 지휘한 고태웅(비욘드 클로젯 대표), 200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디자인 부문상을 수상한 하지훈 씨 등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이외에 김정태(사회적기업가포럼 MYSC 이사)씨와 타워팰리스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은 ‘발 가꾸는 디자이너’ 최시영(리빙엑시스 대표) 씨 등이 착한 디자인과 친환경 디자인에 대해 환기시킨다.

〈주요작품 소개 / 1. 주제전〉

□ 작품명 : 거시기,머시기

○ 작 가 : 김백선/KIM PAIK SUN

- 한국 실내 건축가 협회(KOSID)' 부회장 - 한국 건축가 협회(KIA)' 공공 디자인 위원장



<2013 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로컬과 글로벌의 컨버전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라는 지역이 담고 있는 향토적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국제 디자인 트렌드까지 만날 수 있는 로컬과 글로벌의 융합을 시도한다.

먼저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광주라는 지역성에 주목해 로컬 디자인의 재발견과 산업화 방안이 모색됐다. 광주의 향토 디자인을 재발견하고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과 접목해 ‘로컬리즘’을 구현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지역 5개 구 쓰레기봉투를 지역 디자인 연구기관(조선대학교 유니버설 패키지 디자인센터)에 의뢰해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예술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으며, 광주지역 택시 기사 유니폼을 디자인해 관람객 투표를 통해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쌀 패키지 디자인도 제안하며, 국내 유명 디자이너 40명이 예향 광주와 남도 도시들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디자이너의 앵글로 탐험해 단행본(가제 ‘남도가 정말 좋아’)과 지도로 출간하는 ‘광주지도 프로젝트’도 의미 있는 기획이다.

반면 다양한 국가를 초청하면서 국제 디자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주제전에서 펼쳐진다.

‘Designed to win’(기획자 데얀 수덕)전은 지난해 영국 런던 디자인 미술관에서 선보인 전시를 광주로 옮겨왔으며 ‘아세안 11개국의 전통·현대 가구전’(프로젝트 매니저 은병수)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1개국의 대표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동남아시아의 디자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구마 겐코의 ‘일본관’과 ‘중국관’, ‘호주/뉴질랜드전’ 등은 해외의 디자인 트렌드를 보여준다.

기획·생산·유통까지 산업화 시도

이번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이너와 산업체의 공동브랜드, 공예가와 디자이너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기획·개발·유통에 나서면서 ‘산업화’를 모색한다.

광주지역 의류업체인 전남방직과 디자이너들이 협업으로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타월, 침구류 등 패션 소품의 유통까지 고려했다.

10명 장인과 10명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공예의 산업화’ 프로젝트가 진행돼 호텔에 실제로 판매할 공예품을 선보이며, 생산 가능한 제품을 완성시키고 판매를 시도한다. 광주에서 영업 중인 맛집 5곳을 선정해 스타일리스트들이 맛깔스런 상차림을 제안하는 ‘테이블 세팅’(광주 맛집) 프로젝트도 음식점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

일상과 공공영역, 착한 디자인 모델 제시

디자인이 일상생활과 공공영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일반 관람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평범한 승강장을 디자이너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공공 디자인이 선보이며, 시민 참여 디자인의 일환으로 ‘패브릭 자수 키트’도 마련된다. 자수틀을 일반인에게 제공해 이들이 수를 놓아 만든 각각의 키트를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에 설치되는 ‘가든 디자인’과 연계한 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광주비엔날레 사무동 제문헌에 입주해있는 유러피안 레스토랑 ‘라 프레스코’ 이영환 대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천연 발효를 활용한 빵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아프리카의 간이영화관 등 디자인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을 환기하는 착한 디자인의 모델도 제시한다.

패스트푸드 등 서구식 먹을거리에 밀려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쌀 나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약 20만 명 관람객에게 260g(4인 가족 한 끼 기준)의 쌀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소형 패키지에 담아서 나눠줄 예정이다.

이영혜 총감독은 “디자인은 개인의 생활, 사회와 국가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나의 디자인 철학이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반영됐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재)광주비엔날레가 주관하며 광주디자인센터가 전시에 참여했다.

<자료제공 :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

〈주요작품 소개 / 2. 본전시〉

□ 작품명 : 공예의 산업화

○ 기 획 : 손혜원/Sohn Hae Won

－ 홍익대 교수 역임 － 현 크로스포인트 대표



〈주요작품 소개 / 3. 특별전 1-디자인산업화〉

□ 작품명 : 가든 디자인

○ 작 가 : 최시영/Choi Siyoung -현재 LMING AXIS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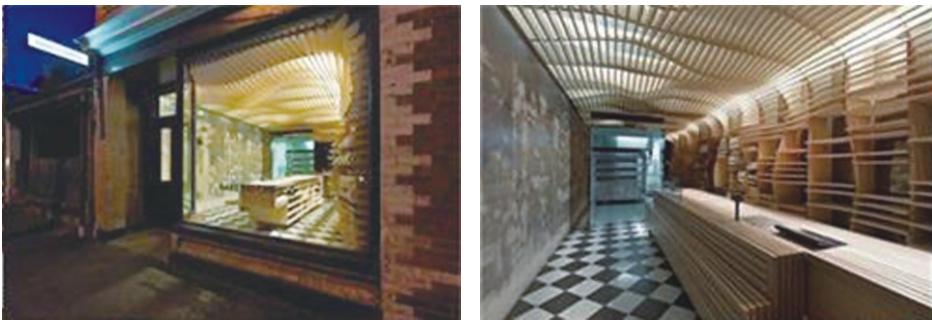
－ IFI 총회, 세계실내디자인대회 조직위원장 및 각종 협회 운영위원



〈농사와 디자인〉

□ 작품명 : 대숲햇쌀 Daesoophaetssal- Rice under the sunshine through bamboo forest

○ 작 가 : 강신재 Kang Shin Jae/ 최희영 Choi Hee Young 보이드플래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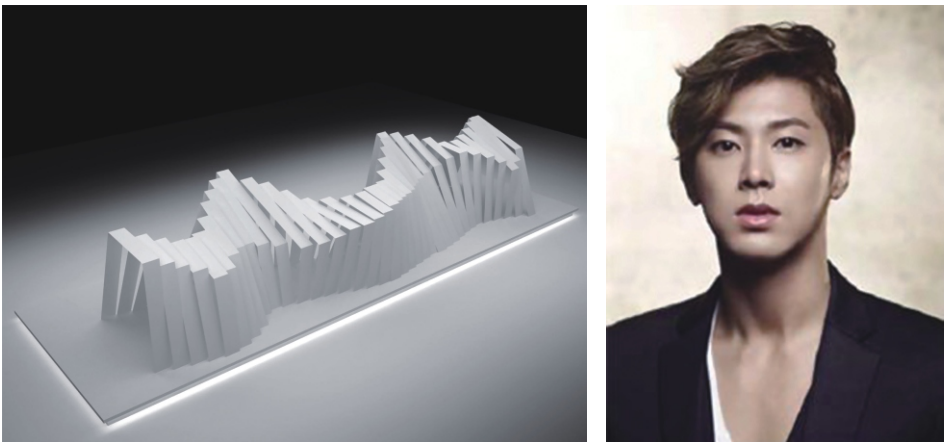


〈주요작품 소개 / 4. 특별전 2-지역서비스디자인〉

□ 작품명 : 유노윤호의 내가 좋아하는 광주’, ‘My Favourite Gwangju’

○ 작 가 : 이우진, LEE WOOJIN - 2004년부터 (주)이우진어소시에이트를 설립, 운영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운영이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_2부

》 플로팅건축의 국내외 현황



문창호 교수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mchangho@kunsan.ac.kr

1부 : 플로팅건축의 배경 - 2013년 7월

1) 플로팅건축의 유래, 2) 플로팅건축의 필요성

2부 : 플로팅건축의 국내외 현황 - 2013년 8월

1) 우리나라의 플로팅건축, 2) 유럽지역의 플로팅건축, 3) 미주지역의 플로팅건축

3부 : 플로팅건축의 전망 - 2013년 9월 예정

1) 각종 플로팅건축 제안, 2) 앞으로 플로팅건축의 방향

플로팅건축(부유식 함체 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향후 펼쳐질 수해양시대 건축 부문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에서 플로팅건축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전북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의 원고를 2013년 7월호부터 9월호까지 총 3회에 걸쳐 게재코자 한다.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답사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플로팅건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플로팅건축이 아직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며, 근대화된 공법으로 시공된 것도 그리 많지 않다. 여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계획안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지역, 미국에서 플로팅건축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우리나라의 플로팅건축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로팅건축은 2011년 준공된 세빛둥둥섬이다. 디자인이나 건축적인 측면보다는 재정, 운영,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홍수에 대비한 과다한 계류장치, 하부구조를 철판으로 만들어서 선박형태로 설계한 것,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고도의 오페수시스템, 플로팅건축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부구조물 등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세빛둥둥섬의 사례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플로팅건축의 개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강의 곳곳에 떠 있는 부유식 매점, 서해나 동해의 바다 낚시터에서 볼 수 있는 부유식 펜션, 유원지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부유식 간이건물 등은 주요 구조부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물이다. 반면에 부유식 방파제, 부유식 부두, 부유식 마리나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되어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플로팅건축의 함체로 이용하면 안전한 구조물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유럽지역의 플로팅건축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지 레벨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플로팅건축의 역사가 깊다. 잔잔한 바다, 강이나 운하에 다양한 형태의 플로팅 또는 플로터블(floatable) 주택이 건립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플로팅 주거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플로팅주택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 엘베(Elbe)강에 떠 있는 IBA Dock가 있는데, 2010년 국제건축전시회(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 때 본부 건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함부르크 도시건축정보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하루에 엘베강의 수위 차가 3.5m 정도인데, 건물은 돌핀을 통하여 적응한다.

당시 국제건축전시회의 주제가 '기후변화속의 도시'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건물이 되었다. 상부건물은 콘크리트 폰툰 위에 철판으로 모듈러를 적용하여 조립식으로 건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엘베강의 수열을 이용하고, 태양열 및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Zero Energy)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세빛둥둥섬 (출처 : <http://www.skimkr/473>)



▲네덜란드의 계획된 대규모 플로팅주거단지 (출처 : 필자 촬영)



▲네덜란드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플로팅주택(출처 : 필자 촬영)



▲독일 함부르크의 IBA Dock
(출처 : 필자 촬영)



▲스웨덴 플로팅호텔 "Salt and Sill"
(출처 : 필자 촬영)

스웨덴 남서부 조그만 도시인 클래데스홀멘(Klädesholmen) 섬에는 2008년 건립된 플로팅호텔 "Salt & Sill"이 있다. 원래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식당과 연계하여 건립되었다. 주변에 마땅한 땅이 없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서 이 플로팅호텔이 제안되었다. 비록 시골의 조그만 해안에 건축되었지만 연중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상 2층으로 23실(46베드) 규모이며, 콘크리트 폰툰 위에 경량구조인 목조로 건축되었다. 바닷물의 수열을 이용

하여 난방을 하고, 지역의 자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1층 바닥을 폰툰위로 약간 띄워서 각종 설비라인의 배선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등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건립되었다.

3) 미주지역의 플로팅건축

미국과 캐나다의 서해안에는 플로팅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은 Fraser River와 Vancouver Harbour 에 많은 플로팅주거가 산재해있으며, 미국 시애틀 지역은 유니언(Union) 호수에 500여채의 플로팅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포틀랜드 지역은 Willamette River 에 오래된 플로팅주거와 더불어 새로운 플로팅주거단지의 신축이 활발하다.

예전에는 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임시 주거 성격의 플로팅주택에 살았지만, 이제는 플로팅주거단지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기존 플로팅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등 고급주택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의 신축 플로팅주거단지 (출처 : 필자 촬영)

필자가 답사한 플로팅주거 이외의 건물로는 캐나다 리치몬드에 있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oathouse가 있다. 이 건물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UBC 조정 팀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조정 팀의 훈련을 위한 시설이다.

이 플로팅건물은 콘크리트 함체 위에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과 닿아 있는 아래층은 보트 창고 등 조정 기구에 관련된 시설이 있고 보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위층에는 조정 관련 운영/관리 시설과 다목적실이 있는데 육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다목적실은 결혼식을 비롯하여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에는 Newport Seafood Grill 체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운타운 지역의 마리나와 연계하여 Willamette River에 건립된 플로팅 레스토랑이다. 이 식당은 단아하고 다이내믹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서의 외부 조망이 아름답고, 훌륭한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계류를 위한 돌핀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홍수시를 대비하여 건물의 거의 2층 높이로 세워져있다. 돌핀에 붙어있는 진흙을 보면 수위변동에 따라서 건물이 약 2m 정도 상승/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리치몬드의 UBC Boathouse
(출처 : <http://www.mmal.ca/ubcboathouse/page2.html>)



▲미국 포틀랜드의 Newport Seafood Grill
(출처 : 필자 촬영)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1부 /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말 속의 건축현실



김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kkhfile@snu.ac.kr



▲Kolumba Museum _Peter Zumthor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11
_ Peter Zumthor

바로 조금 전 매우 우수한 한 고등학교의 3학년 여학생이 내 연구실을 찾아와 건축 지망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말하고 갔다. 본인은 이미 건축학과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앞으로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며 건축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게 분명히 말하였다. 건축학과는 어떤가 하고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그러함에도 건축학과를 지망하겠으니 이 생각을 굳혀주는 말씀을 부탁한다고 나를 찾아온 여학생이었다. 기특했다.

건축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받거나 어쩌다가 만나는 일이 제법 있다. 대개는 건축학과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주변의 만류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건축사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나는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신념뿐이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수험생들의 부모들이 만류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 첫째 건축을 포함한 건설은 앞으로 2020년까지 하강할 것이며 특히 내년은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건축과 토목과 플랜트를 합한 글로벌 건설 시장은 앞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한국 건설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전체의 30% 정도일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설 분야의 전망이다. 그런데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어떤가? 이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건축설계가 응당 받아야 할 대가는 전문가로서 받아야 할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가가 적은 곳이라면 그 전문인도 사회적 급수가 높을 리 없다. 그러려면 그 추이를 계속 점검하고 대안을 내는 일정한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전해 듣기로는 우리나라 각종 건축 관련 협회에 AIA 도큐먼트 하나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건축설계 업계가 각종 계약서, 업역의 확보 등에 안주하여 답습했다는 증거다. 더욱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합리화하는 데 열심인 다른 엔지니어 협회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안이하다. 알고 계시는지? 건축사 보수대가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이제까지 건축계 자체에서 발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몇 번의 개정 모두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건축설계대가의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설계란 기술 우열로 판가를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몇 수가 훨씬 앞서 있는 기계공학의 어떤 교수가 학회에 나

타나면 다른 연구자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모 대학 공대학장님에게서 들었다. 앞선 기술 앞에서는 엄격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설계는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로우 테크로 얼마든지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계와 그렇지 못한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로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 건축설계란 크게는 자본 사정의 문제이고 작게는 취향의 문제이므로 건축설계의 우열이 쉽게 서지 못한다. 이것은 이 직업의 장점 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늘어도 되고 줄어도 되는 전문인 집단이 건축사와 그를 돕는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되어 버렸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건설하고 확장하던 사회였다. 짓고 또 지었다. 건축경기를 주도하던 아파트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줄 알았다. 확장되는 사회에서는 그런대로 예전의 관습대로 지내도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지하고 말았다. 확장이 아니라 축소하고 건설보다는 있는 것을 바꾸어 쓰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건축설계는 갑작스러운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 이들에게 이런 문제의 해법을 집결시켜 줄 방향타를 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조직이, 어디를 향하여, 무슨 방안을 내서 지금의 여러 난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주도 세력이 안 보인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실제로 그 일을 수주하고 설계하며 운영하는 것이 모두 극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상의 성격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기 작품의 가치를 덧씌우는 데에도 개인의 능력으로 치장하기도 하여 과장해도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나는 오늘 찾아온 이 여학생에게 솔직하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서 타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건축에 대한 한 사람의 애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건축학과에 들어와 건축설계를 평생의 업으로 하려면 현재 잘 나가는 사람을 동경하여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건축이 담고 있지 못하는 바를 개척한다는 것,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 시집을 가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설계를 잘 할 뿐 아니라 수주도 잘 해야 한다는 것, 거장들조차도 현상설계 타율이 1할 대이니 떨어지더라도 계속 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일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ter Zumtor가 자신의 책 <ATMOSPHERES>에서 읽은 글을 천천히 읽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먼 훗날 내가 건축 작품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작품을 넘어 이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들의 생활에 바짝 다가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풍부해지도록 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라고. 나는 이것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최종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나를 찾아온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마지막 조언이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마지막의 조언은 사실 이 여학생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곳에서 그에게 좌표를 안내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기고 1 정세영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원광대학교 졸업전시회 일정이 발표 되어...



열리게 되며, 우리는 모두 긴장 속, 최후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해가 뜨는 대학 캠퍼스를 내다 보고 있다.

8월, 여러 학교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이 취업과 자신의 5년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달이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이 5년간의 실력을 뽐내는 졸업전시회를 9월에 갖고자 한다. 지금 5학년은 3반으로 나뉘져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윤충열 교수님, 이성균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있다.

이번 졸업 전시회의 주제는 ‘이방공간’이다. ‘이방공간’이란 도심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공간을 의미 하는 것인데 이번 2013년도 가장 의미 있는 단어가 ‘Healing’이라는 단어여서 주제로 채택된 것 같다. 졸업 전시회는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원광대학교 숭산 기념관에서

학생기고 2 정세영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학생기자’를 마치고...

요새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학생기자”는 대체로 무엇을 해?”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학생기자는 학교에 있는 정보를 제공 해주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고 기회가 된다면 너도 나중에 기자를 한번 해 보아라” 라고...

2011년 10월 달부터 학생기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세어 보니 총 6번 정도의 워크숍을 참여했던 것 같다. 다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작품들을 보면서 설계하신 건축사님께 직접 생각을 듣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느끼는 것도 좋았고,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의 말씀도 너무 고마웠다. 그처럼 학생기자 활동은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학생기자 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더 나아가 워크숍이 아니라도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친목을 다지는 자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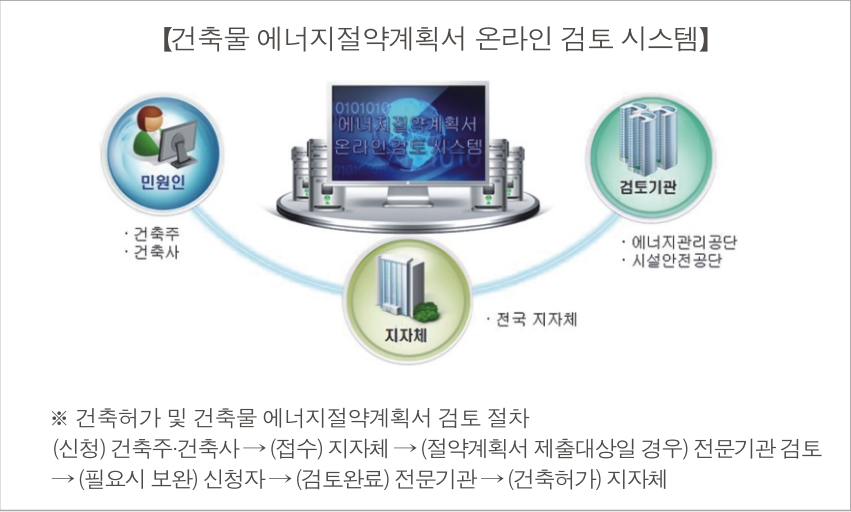
2011년 나주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오늘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과 과정이 있었다. ‘건축문화사랑’이라는 건축 정보지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학생기자들 끼리는 계속 친목을 유지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7월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현재는 용도별(아파트, 업무·판매·교육시설 등)로 연면적 5백~1만㎡→(9월 1일부터는 모든용도 5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설계에 대해 의무사항·권장사항 등의 준수여부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до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A3 도면 6백만장/연 절감, 탄소배출 35ton/연 감축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신청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서류제출, 서류보완 등을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현재>),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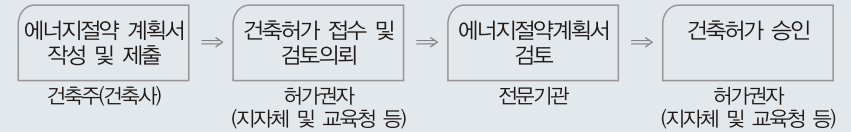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등 기준을 제시하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규정
-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내 용

-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 여부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결정
-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60점 이상(‘13.9.1 이후 65점 상향)
- * 공공은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 * 에너지성능지표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의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화

<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외단열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 설비 채택
신재생부문 : 난방,냉방,급탕,전기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채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참여작 공모

－오는 9월 4일까지 신청, 패시브디자인·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작을 공모한다.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공모 참가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받는다.

녹색건축대전에 참여한 작품 심사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3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된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부, 문화부, 산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300만원), 주관 및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green2013.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9월 27일까지 등록 / 총상금 1,200여 만원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 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미래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아이디어 공모분야

－ 현지개량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낙후된 구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학교, 공장 등 이전적지 및 유휴지 활용방안,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접목사업 등 다수

2. 시상－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10점) : 상장 및 기념품,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3. 등록 : 2013년 6월 12일부터 9월 27일

4. 작품접수 :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5. 작품제출 규정 : A4 1매

6. 작품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우)500-876

7. 문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26 / E-mail : gjkira@empal.com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1차필기시험오는8월16일까지접수/1급 :모든건축물,2급 연면적500㎡ 미만평가

본지 44호(2013. 7월) 12면(NEWS)에 게재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과 관련, 상세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 시행계획

○ 접수기간

검정방법	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1차 필기시험	2013.8.5 ~ 2013.8.16	2013.12.1	2013.12.30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 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2차 실기시험	2014.1.6 ~ 2014.1.15	2014.2.23	2014.3.24	

-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참조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 시험시간

구분	1급, 2급 공통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시험시행일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필기시험	2013.12.1	09 : 30	10:00~12:00(120분)	10:00~11:30(90분)
2차 실기시험	2014.2.23	09 : 30	10:00 ~ 12:30 (150분)	

○ 검정수수료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66,000원	82,000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56,000원	72,000원

-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원

□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 자격의 주요내용

자격의 등급	검정의 방법	시험과목	출제문항	시험시간
1급	1차 필기시험	4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12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제당 15분(총150분)
2급	1차 필기시험	3과목	과목당 20문항	문항당 1.5분(총90분)
	2차 실기시험	1과목	10문항	문제당 15분(총150분)

○ 응시자격 기준

구분	응시자격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제출서류

○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수험원서 1매

－증명사진(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cm×4.5cm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소정 양식

○ 제출방법 : 응시자격 증명서류제출 기한 내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전라북도, 설계와 감리용역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키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과 관련해 지역업체 배려하는 방향으로 심의

전라북도는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제도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과 관련해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방향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세부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감리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토목설계 분야의 경우 참여기술자실적 만점을 애초 15건에서 10건으로 축소했고, 유사용역 만점도 최근 5년간 5건에 70억에서 5건에 50억으로 완화했다.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에도 참여기술자실적 만점을 애초 15건에서 9건으로 줄였고, 유사용역 만점도 최근 5년간 5건에 70억에서 5건에 15억으로 크게 축소,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참여감리원 민원해결 및 성실시공 표창 가점을 삭제하는 반면 건축분야 책임감리용역 면접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향에서 공정성도 확보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은 업체의 용역실적, 신용도 및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

－오는 2014년 11월 공연과 전시, 휴식 등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

광주광역시는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을 다양한 세대가 찾는 상징적이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건립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된 시민회관의 관람석 지붕을 철거해 보강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오는 2014년 11월 공연과 전시, 휴식 등을 제공하는 열린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 문화광장인 야외공연장과 실내소극장, 전시실, 카페 등을 갖춘 예정이다.

광주시는 새로 조성되는 시민회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창조 기능을 수용하고, 사적국제문화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도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도시경관, 내가 살고 싶은 집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작품접수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중학교 학생이며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응모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음.

○작품규격 : 켄트지 4절지(크기 38cm×53cm), 초등학교 저학년은 8절지도 가능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792번에서 다운 받아 이름, 학교명, 학년/반/번호, 작품명, 작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주소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

☎우편제출의 경우 10월 11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수상자 발표 및 시상내역

○수상작 발표 : 2013. 10. 18 (금) http://gjkir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시상식 : 2013. 11. 23 (토) (개별통지)

○전시 : 2013. 11. 21 (목) ~ 11. 24 (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상 : ①초·중등부 : 최고상(총 3점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등 다수
②유치부 : 최우수상(2점 / 10만원 상당 상품) 등 다수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아토파킹

광주·호남 / 문의 011.618.2895









〈지하 1대〉

〈유휴 지하공간 활용〉

 **NAVER**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3147(2012. 10. 4) 주차대수인정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일동, 중복 맞아 봉사활동 나서

－ 지난 7월 23일 남구 노인복지관서 300여명 노인들에 중식제공 및 배식봉사



▲안길전 회장과 최영호 남구청장 배식봉사



▲광주건축사회원 봉사활동 기념사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23일 중복을 맞아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이날 봉사는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강필서, 정명철 부회장 등 광주 지역 건축사회원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남구청 최영호 청장도 동참했다.

건축사회에서 300여명의 노인들에게 불고기 등 250만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고, 봉사 참가자들은 직접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안길전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성

- * **입회**
 - － 박규상 건축사 / 백두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92
 - － 봉환성 건축사 /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서구 상무대로 924(쌍촌동) 엔에스타워 5층
- * **변경(소재지)**
 - － 이영곤 건축사 / 나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36 826번길 (쌍암동)
 - － 안성섭 건축사 / 우도종합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2로 9번길 29-13 (금호동)
- * **변경(상호, 소재지 변경)**
 - － 정관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이엘앤드자경재단디자인그룹
광주 동구 동명로 26번길 15-1 수하빌딩 2층
- * **부고**
 - － 조준원 前회원 별세 / 8월 5일 (월)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성

- * **전입(광주 → 전남)**
 - － 배석순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7-0
- * **폐업**
 - － 천경훈 건축사 / 다름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상동 957
- * **변경(소재지)**
 - － 정용재 건축사 / 태진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4-1
 - － 이환욱 건축사 / 동일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7
 - － 손상미 건축사 / (주)우영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성박로 13-0
- * **부고**
 - － 조경환 건축사 / 여행 건축사사무소
본인사망 - 7월 7일 (일)
 - － 심우석 건축사 / 우성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7월 9일 (화)
 - － 문명석 건축사 /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7월 23일 (화)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성

- * **입회**
 - － 신봉현 건축사 / 동방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향교동 1061-2
- * **변경**
 - － 류충렬 건축사 / 금만 건축사사무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57-1(서암동)
 - － 배종철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당산길 10
 - － 문남영 건축사 / 맥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2(조촌동)
- * **부고**
 - － 최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조모상 - 7월 16일 (화)
 - － 정병술 건축사 / 신우 건축사사무소
본인사망 - 7월 22일(월)

News 광주·전남·전북 8월지역축제안내

- ▶ 06. 08 (토) ~ 10. 27 (일)까지 2013 순천하늘빛축제
 - －전남 순천시 장대공원
- ▶ 07. 30 (화) ~ 08. 15 (목)까지 2013 동물원에 없는 동물전시회
 -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
- ▶ 08. 15 (목) ~ 08. 18 (일)까지 제18회 KBC 웨딩박람회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 ▶ 08. 16 (금) ~ 08. 18 (일)까지 2013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
 - －전남 여수시 거문도, 백도 일원
- ▶ 08. 17 (토) ~ 08. 18 (일)까지 2013 고창 갯벌 체험축제
 - －전북 고창군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 08. 17 (토) ~ 09. 01 (일)까지 2013 광주 예술난장 '굿+판'
 - －광주 남구 전통문화연구회열쑤
- ▶ 08. 23 (금) ~ 08. 25 (일)까지 제18회 필봉 마을 굿 축제
 - －전북 임실군 필봉문화촌

법 / 령 / 정 / 보

ㄹ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11930호, 2013.07.16 공포)

1.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07.1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며, 개별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24529호, 2013. 5. 6. 공포, 2014. 5. 7. 시행 및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공포, 12. 18.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바닥충격을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분 구체화(안 제3조의2 신설)
 -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세대 내 층간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을 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을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
 - 2) 바닥충격을 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발코니, 현관,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안 제4조)
 - 종전에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 다.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설치 기준정비(안 제6조)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차도·보도 및 차도와 보도의 경계 등 도로 설치기준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9일간의 디자인축제가 오는 9월 6일부터 개최된다. 20개국 358여 디자이너·기업이 참여, 9600여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래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 철	동일교역(주)	900,000원
박동준	(주)그로포에이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박홍근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단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느느낌

IAPS 2013 Symposium,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건축 이슈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IAP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 &Environmental Studies)는 <국제 환경-행태 학회>이다. 전통적으로 IAPS에서는 건축가, 도시설계 및 계획가, 심리학자 만 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론과 실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다.

IAPS는 1999년과 2011년에 우리 학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대구에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번 IAPS 심포지엄은 스페인의 북서부에 위치한 Coruna라는 중소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학술행사 참가자들은 35개국 120여명의 발표자가 참석을 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과 홍콩 등에서 참석하였고, 국내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6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는 <변화하는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위기상황에서의 창조적인 공간과 사업에 대한 기회들을 규정하는> ‘Sustainable Environments in a Changing Global Context: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Innovative Spaces and Practices in Contexts of Crisis’> 였으며, 심포지엄에 앞서 제시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의 세상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인간의 삶과 생활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주거에서 커져가는 추세는 무엇이며,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한 기회와 위협요소는 무엇인가? 새로운 주거환경이 새로운 지구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경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공간-문화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경제적인 이익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논리 안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새로운 기술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도시나 외곽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건축과 디자인을 위한 기회는 어떤 것인가? 사회과학적 접근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학술행사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환경에서 어떻게 건축활동을 해나가는 가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우리 모두의 고민, 다양한 국가에서 당면한 환경과 고민의 비교를 통하여 건축과 도시에 대한 물리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민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다.

심포지엄이라는 형식의 국제 학술행사는 결과를 먼저 보기보다는 초기의 생각과 내용을 다양하게 말하고 비교해 봄으로서 자기 나라, 각각이 고민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길을 찾아가는 학문 융합의 장이라고 생각되었다. 언제나 강의를 듣는 방

식이 아니라 그 곳에 참여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견해와 관점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바탕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학술행사가 끝나고는 스페인의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코루나 주변의 문화유적과 주택답사가 곁들여졌으며, 그 이후에도 며칠간 리카르도 교수댁에 머물면서 북대서양의 시원한 바다, 인근에 있는 기독교 성지인 Santiago와 기독교유적, 돌아오는 길에 스페인의 고도 Toledo와 Madrid를 돌아보게 되어서 학술행사 참가후에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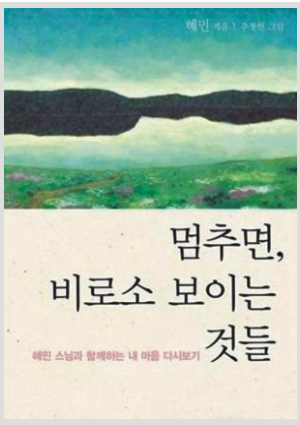
매년 국제학술행사의 개최지를 정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아직 가보지 않았던 도시에서 행사에 참가하고 또 그 주변 도시들을 방문하는 장소를 기대하기 때문이리라. 나에게도 내년 IAPS 국제학술행사 개최지가 루마니아이라고 하니 새로운 주제발표와 미지세계에 대한 여행이 기대된다.



▲IAPS 총회 개막행사

내가읽은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는것들” 책을 만났고 과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순간을 사랑하고, 순간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부족한 스스로를 비추어보려고 노력하는 승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헤민스님을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훈훈한 미소와 정직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서점에서 구입한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을 만났고 과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순간을 사랑하고, 순간을

감사하고, 순간을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건 아닐까요. 헤민스님은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 휴식, 관계, 미래, 인생, 사랑, 수행, 열정, 종교에 대해 헤민스님의 생각들이 담겨있습니다.

문장이 어렵지 않고 그 간결함 속에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듯이 다독여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을 정독하며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찬찬히 읽다보면 “그렇구나” 이해하고 때론 반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책 사이에 화가 이영철님의 순

조상민 건축사
상민 건축사무소(익산)

수하고 따뜻해지는 그림도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기대고 싶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때, 모든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일상의 스트레스로 순간을 잊고 지낼때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길....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 인지, 세상이 바쁜 것인지...

헤민(승려) 글, 우창현 그림 쌤앤파커스 2012

현장의눈



건축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는 상자

광주건축사회관 4층 건축사회 사무국 입구에 들어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다. 연말연시에 건축사들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모아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시작되었고, 차츰 채워지고 있다. 건축사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져 이 큰 통이 꽉 채워지는 연말연시를 기대해 본다.

글 · 사진 : 광승국 전담기자

건축사 Photo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의 역사와 전설이 살아있는 삼학도에 2013년 6월 15일 개관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전시 사료들과 영상, 체험활동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백재봉 건축사기자/백건축사사무소(목포)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탁스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차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탁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탁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주력제품 : FBD PANEL

-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